

금속으로 만들어진 목관악기 ‘색소폰’ (II)

글 | 성광모 _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kmsung@acoustics.snu.ac.kr



하드 러버 (검은색) 또는 금속으로 만든 몇 가지 마우스피스들의 예

요즘 우리 나라에서는 색소폰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다. 많은 성인 남녀들이 색소폰을 배우기 위해 동네 음악학원이나 백화점 문화센터에 모여들고 있다. 악기를 배우는 등의 취미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시기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2만 달러가 되는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아마도 1만 달러 이하인 시기에는 우선 당장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만, 1인당 2만 달러 정도의 소득 수준에 오르면 좀 더 가치 있고 품위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겠다.

어느 장르의 음악도 표현 가능한 ‘천의 얼굴 지닌 악기’

중년이 되어 악기를 새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필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악기를 배우면 좋겠느냐는 것이다. 필자가 그들에게 권하는 악기의 순서는 기타, 아코디언, 색소폰이다. 기타나 아코디언은 독주 악기로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노래의 반주를 하기에 적당히 실용성이 있는 악기여서 언제나 가장 먼저 추천하고 있다. 색소폰의 경우에도 관악기 중에서는 처음에 배우기도 쉽고 실용성이 있어서 앞의 두 악기 다음으로 추천하고 있다.

색소폰은 발명자인 아돌프 사스의 의도대로 목관악기이지만 금관악기와 견줄 수 있는 파워와 찬란한 음색을 지녔기에 정통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교회음악, 가요, 재즈 등 어느 장르의 음악도 표현이 가능하다. 필자는 늘 색소폰을 ‘천 가지 얼굴을 지닌 악기’라고 표현한다. 색소폰은 가장 고상한 음악에서부터 가장 세속적인 밤무대의 음악까지 거기에 알맞은 표현이 가능한 악기이다. 또한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소리를 낼 수 있어서 중년의 나이에 악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악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훌륭한 악기인데도 색소폰은 왜 재즈나 군악대 등에서나 성공했고, 교향악단에서는 색소폰 주자를 정단원으로 두지 않을까? 필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색소폰이 너무 늦게 발명되었다는 것이다.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생존



좌 : 색소폰 마우스피스, 우 상단 : 캡, 우 하단 : 리가추어(조리개)

했을 때에 색소폰이 있었다면 아마도 색소폰 협주곡이나 색소폰 소나타를 작곡해서 후세에 남겼을지도 모른다. 클라리넷의 경우에는 클라리넷이 독일의 테너에 의해 발명된 것이 1700년대 초기였으며, 모차르트가 그 유명한 클라리넷 협주곡을 작곡한 것이 그의 생애 마지막해인 1791년이 었다. 모차르트 당시의 클라리넷은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아직도 한참 진화 중인 때여서 훌륭하게 잘 연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던 악기였다. 그러나 우연히도 모차르트와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안톤 슈태틀러가 당대의 훌륭한 클라리넷 연주자로서 모차르트에게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의 특성을 잘 보여준 덕분에, 오늘날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클라리넷 협주곡을 남기게 된 것이다.

악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작곡가가 그 악기를 위한 곡을 써주지 않고, 연주자가 연주해 주지 않으면 그 악기는 빛을 볼 수 없게 마련이다. 색소폰이 발명된지 250여 년이 지났지만 일부 프랑스 작곡가나 현대 작곡가들만이 색소폰을 위한 곡을 쓸 뿐이며, 또한 위대한 협주곡이나 소나타들이 휩쓸고 간 이후에 탄생되었다는 것 때문에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아직도 색소폰이 서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유럽이나 미국의 음악대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색소폰을 정식으로 전공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하나, 색소폰 전공의 정규 전임교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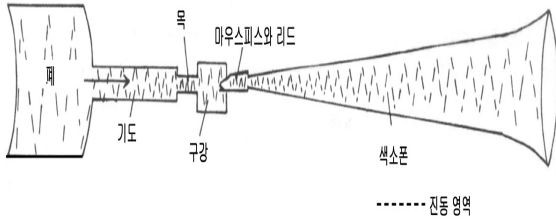
색소폰 마우스피스에 리드가 리가추어로 장착된 모습

마우스피스, 리드, 리가추어가 음색에 큰 영향 줘

색소폰은 초보자가 처음 소리 내기는 쉬워도 아름답고 세련된 음색의 소리를 내기까지 상당한 수련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입으로 악기의 마우스피스를 무는 자세인 앙부슈어, 마우스피스의 형태나 재질, 리드의 형태나 재질, 리드를 마우스피스에 고정시키는 리가추어(조리개)의 종류에 따라 음색이 여러 가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마우스피스는 그 곳에 리드를 장착시키고 입으로 물고 붙게 하는 부분으로서, 보통 하드 러버나 금속을 사용한다.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하드 러버를 선호하고 금속 마우스피스는 대중음악 연주자들이 많이 사용한다. 일반인들은 마우스피스의 재질이 우선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음향학적으로는 마우스피스 자체의 생김새, 즉 구조가 더 중요하다. 마우스피스 끝부분에서 리드와 이루는 간격(오프닝), 리드를 진동시켜주는 길이 방향 범위의 휘잉의 길이, 그리고 마우스피스 내부 체임버의 부피와 모양 등이 소리의 음색에 큰 영향을 준다.

마우스피스와 함께 리드도 음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리드가 진동하여 폐로부터 색소폰 몸체로 들어가는 공기흐름의 개폐가 이루어져서 소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리드야말로 소리 발생의 근원인 셈이다. 리드의 재료로는 프랑스 남부에서 자라는 특수한 종류의 갈대 줄기인 케인을 사용하거나 근래에는 가끔 고분자 합성물질로



색소폰 소리 발생시 호흡기관의 영향

만들기도 한다. 리드는 그 자체가 진동하기 때문에 재질도 중요하고, 형태도 중요하다. 리드의 길이, 방향, 두께, 분포, 즉 리드 커팅에는 전통적인 프랑스식 방법과 미국식 방법이 있는데 프랑스식 방법은 끝부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두껍게 만드는 방식이고 미국식은 약간의 변형을 가미한 것이다. 같은 알토 색소폰용의 리드라 하여도 두께를 2.0에서 0.5단계씩 높여서 5.0까지 표시하는 제품이 많다. 숫자가 높을수록 리드가 상대적으로 두껍다.

초보자는 보통 2.0이나 2.5의 얇은 리드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소리 내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얇은 리드를 사용하면 음색이 가볍고 깊이가 없어, 전공자들은 보통 3.5나 4.0 이상의 리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리드는 마우스피스와 함께 유기적으로 고려해야 좋다. 마우스피스 오프닝이 넓은 때는 얇은 리드가 알맞고, 오프닝이 좁을 때에는 두꺼운 마우스피스가 제격이다. 전 세계에 색소폰 마우스피스나 리드 생산자가 대단히 많다. 저마다 자기네 제품이 제일 좋다고 선전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음색이라는 것이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마우스피스나 리드의 중요성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과학적인 논리가 가능하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량적인 분석도 가능하다. 그런데 단순히 리드를 마우스피스에 장착시키는 조리개인 리가추어도 음색에 꽤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필자도 색소폰을 불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음향학적으로는 진동하는 리드를 묶어 놓은 리가추어도 사실은 진동하며 리드의 진동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리가추어의 영향

을 모델링하거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석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색소폰을 부는 사람들은 어떤 리가추어가 부드러운 음색을 내고, 어떤 것이 날카로운 음색으로 만들며, 어떤 것이 찬란한 음색으로 이끌어 주는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음악대학에서 색소폰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많은 경우에도 지도교수가 선호하여 지정하는 마우스피스와 리드가 있어서 반드시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하여 필자처럼 취미로 색소폰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음질이나 음색을 마우스피스, 리드, 리가추어, 그리고 악기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위에서 또는 악기점에서 다른 마우스피스나 리가추어를 적극 권하면 새로운 희망을 갖고 또 구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하여 어떤 미국의 색소폰 애호가는 수백 가지의 마우스피스를 갖고 있다고 한다. 마우스피스를 비롯한 색소폰 악기 부품산업을 지탱해 주는 사람들이 전공자들이라기보다는 아마추어들이란 견해가 맞는 셈이다.

어떻든 부족한 것을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개선해 보려는 생각을 갖출 수는 없다. 얼마 전에 케니지와 쌍벽을 이루는 재즈 색소포니스트 데이브 코즈가 내한하여 공연을 가진 바 있다. 많은 아마추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연주자,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케니지나 데이브 코즈의 음색을 자기도 내고 싶어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악기, 마우스피스, 리드, 리가추어 등을 동일하게 선택해서 음색을 흉내 내려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 음향학적 이유는 색소폰을 불 때에는 악기 자체뿐만 아니라 악기를 불고 있는 사람의 호흡기관인 구강에서 기도를 거쳐 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악기와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㉓



글쓴이는 독일 아헨공대에서 음향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헨공대 음향공학연구소 연구원, 서울대 뉴미디어 통신연구소 소장, 한국음향학회 회장,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